“고교 배정 국공립 배려 불구 대학진학률 하락”

문상필 시의원 “국립 5.07%P·공립 1.47%P ↓”

광주시교육청 “성적 우수한 재수생 증가 등 원인”

현행 성적에 의한 사실상 강제 고교 배정방식이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우수학생의 사립고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현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사립고보다 공립고의 대학진학률 하락 폭이 컸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4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은 정책 추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육청의 아집이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줬고 실력 광주라는 이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행 고교배정방식에 적용을 받은 1세대들의 2016년도 대학진학률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전년도 86.17%에서 2016년도에는 85.01%로 하락했다.

특히 공립고의 대학진학률을 높이려고 현행 고교배정방식을 적용했는데 오히려 공립고의 대학진학률 하락 폭이 사립고보다 더 컸다.

국립고의 경우 86.32%에서 81.25%로 5.07%P 떨어졌고, 공립고는 88.89%에서 87.42%로 1.47%P 하락했다. 우수 학생 쏠림현상이 없어진 사립고도 대학진학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락률은 0.97%P(85.23%→84.26%)에 그쳤다.

사립고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공사립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했던 시교육청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지역 고교 학력만 낮아졌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강제 고교배정방식이 교육청의 장담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광주 교육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교육 수요자와 전문가, 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고교배정방식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진학률 하락은 곧 고교 배정 잘못’으로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정 문제가 한 이유일 순 있지만, 재수생 증가 등도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대비 올해 졸업자는 공립 98명, 사립 195명 등 300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진학생수는 71명(공립 24, 사립 47) 증가에 그쳤다. 국립은 되레 18명 줄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재수생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대입 수능 응시생 역시 재학생이 693명 감소하는 등 재학생 관련 지표는 대부분 마이너스(-)지만 재수생은 되레 증가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성적 균등 배치보다는 근거리 배치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고, 성적 우수자들의 재수행렬이 증가한 요인도 크다”며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배정 방식에 대한 설문과 함께 학교 중심에서 주소지 중심 배정을 놓고 시뮬레이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59	달뜸	12:48
해짐	17:33	달짐	23:40

우산 챙기세요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오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차차흐려져비	10/19	보 성	차차흐려져비	8/16
목 포	차차흐려져비	11/18	순 천	차차흐려져비	9/18
여 수	차차흐려져비	11/17	영 광	차차흐려져비	9/18
나 주	차차흐려져비	7/19	진 도	차차흐려져비	10/18
완 도	차차흐려져비	11/17	전 주	차차흐려져비	19/18
구 례	흐림	5/17	군 산	차차흐려져비	10/18
강 진	차차흐려져비	8/17	남 원	차차흐려져비	6/17
해 남	차차흐려져비	8/17	흑산도	차차흐려져비	13/17
장 성	차차흐려져비	7/1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5
	먼바다	동~남동	1.0~3.0	남동~남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동~남동	1.0~3.0	동~남동	0.5~1.5
	먼바다(동)	동~남동	1.0~3.0	동~남동	1.5~2.5
	먼바다(서)	동~남동	1.0~3.0	동~남동	1.5~2.5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낮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32	06:22
	--:--	19:05
여수	06:54	00:59
	20:31	13:47

◇ 주간 날씨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9/12	2/10	2/14	7/16	5/18	8/17	5/17

“희망 산타에게 소원 말해봐”

‘희망플러스 소원성취’ 참여자

광주 서구청, 18일까지 공모

“암 투병 중인 엄마에게 온수 매트를 선물하고 싶어요.”

지난 2013년부터 광주 서구청이 지역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매년 말 진행했던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인 ‘서구 희망플러스 소원성취’가 올해도 참여자 공모를 시작한다.

서구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를 통해 희망플러스 소원성취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서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으로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여행, 꼭 갖고 싶거나 선물하고 싶은 물품, 평소 해보고 싶은 활동 등 소원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지난해 7400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186명의 소원을 들어줬다.

‘청각장애 부모님께 바닷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응모에 참여 한 어린이’, ‘홀로 남매를 키워주시는 할머니의 무릎 수술을 위해 사연을 응모한 초등학생’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접수됐다.

올해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가족나눔분과, 서구 기독교단협의회가 어린이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후원자로 나섰다.

서구는 경제적 여건과 사연의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해 12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서구(http://seogu.gwangju.kr) 또는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https://www.seogu.gwangju.kr/seogubj)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360-7075.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삼성전자 임직원과 적십자봉사원 150여명이 지난 4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찾아 연탄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연탄나눔행사에서는 광주지역 100세대와 전남지역 56세대에 연탄 300장씩을 지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안 흑산도 먼바다 규모 3.5 지진 … 피해는 없어

신안군 흑산면 먼 바다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나지 않았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6분께 신안군 흑산면 남남서쪽 106㎞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속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나 흑산도나 목포 쪽에서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전남소방본부도 “피해신고나 지진 문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6시30분께 지진발생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한편 이날 지진을 포함해 올해 전남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모두 5차례 발생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짙은 안개 … 광주공항 항공기 2편 결항 2편 지연

6일 오전 광주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광주공항을 이용하려던 항공기 2편이 결항되고 2편이 지연되는 등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광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OZ8703편과 오전 9시 출발 예정이었던 광주발 김포행 OZ8704편이 결항됐다.

또 이날 제주에서 출발 오전 8시 5분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TW903편 등 2편은 안개로 지연운항 됐다. 무안과 여수공항은 정상 운항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광주신보재단 쪼개기 발주 등 위법사례 8건 적발

광주시 감사위 감사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쪼개기 발주, 과도한 연대보증인 요구 등 위법부당한 실태가 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4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 행정상 조치 8건과 기관경고(1건)를 했다.

경고 7명, 주의 2명 등 9명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4700여만원을 환급·회수토록하는 재정상 조치도 받았다.

감사 결과 재단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등 3명에게 보증료 감면(0.2%)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다징수했다.

연대보증 운영 기준상 대상이 아닌 사람을 무리하게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경제적 약자에게 채무 부담을 가중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보증료 취급 업무 소홀도 드러나 조기 상환 등으로 채무가 해지된 고객에게 환급해야 할 보증료 47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올해 남구지점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5500만원)를 발주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량을 나눠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단일사업으로 경쟁 입찰을 했다면 675만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제한 대상자로 국세체납만을 규정에 둬 지방세 체납이 있었던 14건(1억1600여만원)이 결국 보증사고를 냈다며 감사위는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